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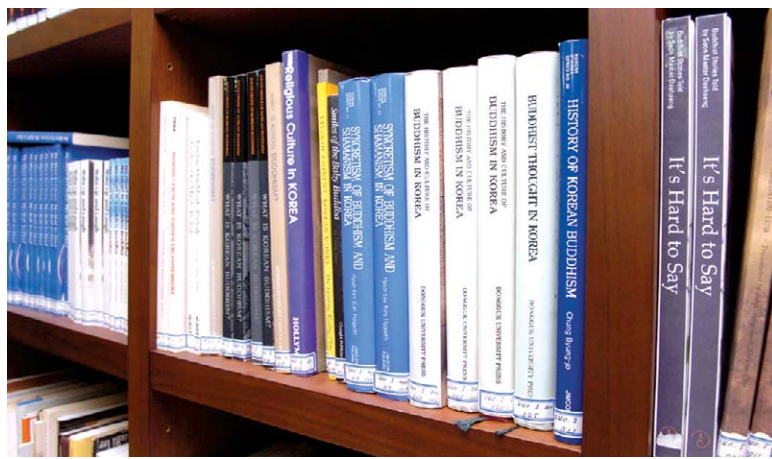
서구 불교 발전 막는 불경 '번역오류'

해의불교칼럼

지난 봄 어느 분에게 절 공부에 깊은 독일 보살님을 소개하자 매우 감탄한 듯 물었다. "그 어려운 한자 불경을 어떻게 다 배우셨나요?" 그 보살님이 빙긋 웃었다. "저는 독일어와 영어로 된 불서들을 읽어요." 좀 민망해 하는 그분에게 오늘날 서구불교에 대해 몇 말씀을 전해드렸다.

영국의 팔리어 전문석학인 리스 데이비즈는 1881년 '팔리어문화회'를 창립하고 <니카야(阿含經)>의 팔리어 원전을 대부분 영역해냈다. 또 미국에서는 자연주의자 무정부주의자인 데이비드 소로가 칼프 에머슨과 함께 1884년 프랑스어 판<묘법연화경(Lotus Sutra)>의 영역 본 일부를 출판한다. 그즈음 불교, 힌두교 등 동양의 영적세계에 심취한 블라바트스키부인 등 일부 서구 지식인들은 신지학(神智學) 혹은 점신학(倣神學)이라 불리는 신비주의 성향의 '데 오스피'를 창시하여 1875년 뉴욕에 신지학 협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헬퍼, 1924년 런던에 '불교협회'라는 밀교모임을 만든다.

이후 1927년에는 <타베트 사자의 사>가 영역 초판이 나오고 1935년에는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융의 주해로 재판된다. 하지만 불경 원전을 일차 번역한 그것을 다시 이차 외국어로 바꾸는 등 증축과 무책임, 그로 인한 불완전 왜곡과 오류는 서구의 불교학(Buddhology) 발전을 되



서구의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거대한 관심을 갖지만 불경의 번역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 사진은 영문 불서들로 본 칼럼 내용과는 무관.

레 가로막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반야심경> 등 불경번역의 개척자인 에드워드 콘즈 박사, 그리고 인도학 및 비교종교학의 태두인 독일철학자 막스 뮐러 등은 산스크리트어 등을 심층 연구하여 직접 번역에 나선다. 또 영국의 모리스 웰시는 <다기니카야(長阿含經)>를 영역하여 1994년 <Thus have I heard>라는 제목으로 펴낸다. 그 내용 중 일부다. "대부분의 팔리어 경전은 '예뻐 매 수탐', 즉 '그렇게 내게 들려졌다'라는 강조적인 수동 형태의 문구로 시작된다." 오래전 여시아문(如是說)으로 한역된 이 도입구절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정갈한 긴장감과 지순한 불멸의 향기를 느끼

게 한다. 우리말로 '나는 그리 들었더라' 또는 '그렇게 나는 들었다'로 풀이가 될 지한 이 말에는 한자로 일시(一時), 우리 말로는 '언젠가' '어느 한 때'로 해석되는 '에캄 사마얌'이란 팔리어 구절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 세존과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께서 머무신 곳, 행하신 일이 펼쳐진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동양어문학 교수인 존 버리프는 1950년 산스크리트어로 쓴 동일 구절의 티베트어 번역을 근거로 '어느 한 때'란 미래전향이나 아니라 과거수급의 의미임을 재확인하고 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로 쓰인 해당경전의 도입부분의 바른 해석은 '어느 한 때 나는 그

리 들었다'라 단언한다. "이는 경전의 구술자가 자신에게 전승된 바를 타인에게 전달함을 입증한다. 즉, 붓다의 행적의 시점이 화자의 회고에 선행되며 팔리어 표현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난다가 붓다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전하고자 스스로 이 구절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앞서 언급한 모리스 웰시의 얘기를 들어보자. "나는 후학들에게 중세 독문학을 가르치던 1951년 불문에 귀의했다. 내가 맨 처음 불경을 펼쳤을 때 느낀 감동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다. 그 첫 구절인 '나는 그리 들었더라'를 대하자마자 800년 경 현대독일어의 원형인 고고지독일어로 쓰인 '힐데브란트의 노래'의 첫 구절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비극적 영웅 서사시 또한 '나는 말해진 바를 들었다(ik gihorta dat seggen)'로 시작된다."

이것이 일부 서사시에 통용되는 형식상 우연인지, 또는 인도-아리안어가 공유한 표현상 필연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 말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렸을일까? 동서양의 여러 저작들과 출판사의 이름에도 이와 같은 문구를 쓴다. 그리고 어느 미국 젊은이의 이름다운 시에도 이 구절이 나온다.

"먼 옛날 그윽한 숨결처럼 그 말씀이 다가오시니 나는 그리 들었더라."

성휴 스님

참조 : Middle Way(Maurice Walsh), Hildebransied, The Theosophy Society,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①

종교분쟁에서 '불교내면'을 보다

부상을 당해 전상메달도 하나 얻어달고 계급도 오른 올리버 스톤 상병은 그때서야 자신이 자유평화를 수호하는 정예의 심자군을 커녕 남의 나라의 일빠진 점이 화자의 회고에 선행되며 팔리어 표현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난다가 붓다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전하고자 스스로 이 구절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앞서 언급한 모리스 웰시의 얘기를 들어보자. "나는 후학들에게 중세 독문학을 가르치던 1951년 불문에 귀의했다. 내가 맨 처음 불경을 펼쳤을 때 느낀 감동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다. 그 첫 구절인 '나는 그리 들었더라'를 대하자마자 800년 경 현대독일어의 원형인 고고지독일어로 쓰인 '힐데브란트의 노래'의 첫 구절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비극적 영웅 서사시 또한 '나는 말해진 바를 들었다(ik gihorta dat seggen)'로 시작된다."

이것이 일부 서사시에 통용되는 형식상 우연인지, 또는 인도-아리안어가 공유한 표현상 필연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 말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렸을일까? 동서양의 여러 저작들과 출판사의 이름에도 이와 같은 문구를 쓴다. 그리고 어느 미국 젊은이의 이름다운 시에도 이 구절이 나온다.

"먼 옛날 그윽한 숨결처럼 그 말씀이 다가오시니 나는 그리 들었더라."

성휴 스님

참조 : Middle Way(Maurice Walsh), Hildebransied, The Theosophy Society, 기타

釋智廣) 스님이 주도한 불교계의 반정부 운동은 비폭력무저항으로 일관한다.

올리버 스톤이 처음 사이공에 도착하기 두 해 전인 1963년 디엠정권의 불교탄압과 내분조장에 맞서 틱꽝득(釋廣德) 스님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한다. 온몸에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좌좌를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열반에 들어서는 그 장엄한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무언의 충격을 가한다.

그 후 일주일 사이에 여러 비구, 비구니스님들이 말없이 틱꽝득 스님의 뒤를 잇는다. 일부 서구 언론이 '인간횃불(Human Torch)'이라 명명한 그 사건을 계기로 올리버 스톤을 비롯한 수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의 내면세계를 새로이 이해하고 불문에 들어서며, 참여불교 또한 이때 태동한다.

그러나 그즈음 의제지원을 열고 헛바람이 잔뜩 든 베트남의 사실상 퍼스트레니 디 마담 고딘누는 외국기자들과 만나 비판부채를 펴내고 이런 소리를 한다. "또 다른 중이 바비큐 쇼(another monk barbecue show)를 하면 난' 박수를 쳐 줄래요."

특정종

교의 진면목을 들추기 이전에, 그리고 선악과 업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까지가지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일련의 사태 직후부터, 그렇듯 비이성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들끓는다. 미국정부 역시 줄곧 엇박자로 나가는 디엠 일당이란 애원 건과 더 이상 붙어줄 수가 없다.

그들의 눈에는 독립항전의 주축으로 프랑스 식민통치자들을 몰아낸 호국불교계가 고맙기는커녕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협하는 장애물로 보인다. 과거 프랑스 통치자들의 앞잡이를 하던 군경 관리들은 불자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고 불탑을 폭파한다.

또한 공권력투입을 정당화하고자 의도적으로 불교계를 자극하며 불탄일에 불기(佛敍)의 계양을 급하고 예불과 전법마저 공공집회 신고를 하도록 통제한다. 게다가 종교적 배경 때문에 군사적 전상 불이익과 회생 번트용으로 내몰리는 불자 군인들도 허다하다.

그리고 진급 보직 차별에 대한 항명과 무자비한 진압은 피리를 물고 이어지며 자국군대 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트리광

교의 진면목을 들추기 이전에, 그리고 선악과 업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까지가지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일련의 사태 직후부터, 그렇듯 비이성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들끓는다. 미국정부 역시 줄곧 엇박자로 나가는 디엠 일당이란 애원 건과 더 이상 붙어줄 수가 없다.

특정종

영국에 불교초교 설립 추진

영국 버밍엄 불교비하라재단은 불교대학에 앞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6월 22일 재단 이사장 존 비어드는 현재 관련 예산책정과 부지선정, 그리고 주변 환경과 주민반응을 다각도로 타당성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당국의 인가와 자금지원에 따라 최초 불교학교가 계획대로 설립되면 별도의 종교적 커리큘럼보다는 국가교육지침에 따라 미취학아동 및 초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등 재단은1998년 버밍엄 레이우드 담파다 파고다에 불교연구센터 설립했으며 같은 위치에 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출처: PA

구독문의 | 02-2004-8200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An arrogant warrior asked a renowned master, "Is there really a paradise and a hell?" "Who are you?" asked the master. And he said "I am a pretty good warrior." "You, a fighting man," sneered the master, "What kind of ruler would have you as his guard? You look like a beggar".

Is there really a paradise and a hell?

극락과 나락이란 것이 정말 있나요?

Exasperated, the warrior was about to draw his sword. The master continued, "So you have a kitchen knife! The blade seems too dull to cut off my head." Finally, the warrior drew his sword, the master remarked, "Alas, here open the gates of hell!" At these words, the warrior perceiving the master's discipline, put away his sword and bowed. "Oh, here open the gates of paradise", smiled the master.

이 되풀였다. "대는 낚시오?" 무장이 대답했다. "깨 술 만한 전사요." 선사가 콧방귀를 뿜었다. "좋아, 씌뽀이시던 한데 누가 먹은 줄개로 쓰시는가? 낚짜도 꼭 가져들이 생겼구만." 확 치민 무장이 칼을 뽑으려는 데도 선사는 출근 이죽었다. "이이고, 부엌칼을 가져셨군 한데 칼날이 무더서 어디 내 목이 처지겠냐?" 마침내 무장이 칼을 뽑아들자 선사가 말했다. "오호라, 나락의 문이 활짝 열리도다!" 그 말에 선사의 범력을 알아차린 그가 칼을 거두고 절을 올렸다. 그러나 선사가 미소를 지었다. "오, 극락의 문이 활짝 열리도다." 반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종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종	자 영 업 대 전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종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종	회 사 원 대 전
김기범	1969년생	180	대	종	회 사 원 대 전
홍봉표	1967년생	180	대	종	회 사 원 대 전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종	회 사 원 대 전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임형준	1973년생	176	대	종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종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종	회 사 원 대 전
정화선	1960년생	175	대	종	회 사 원 대 전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종	회 사 원 대 전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종	회 사 원 대 전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이현철	1972년생	175	방	종	회 사 원 대 전
김중희	1963년생	163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종	회 사 원 대 전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최용상	1970년생	170	방	종	회 사 원 대 전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종	회 사 원 대 전
남근대	1971년생	173	고	종	회 사 원 대 전
육근성	1970년생	185	전	종	회 사 원 대 전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종	회 사 원 대 전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종	회 사 원 대 전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종	회 사 원 대 전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종	회 사 원 대 전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종	회 사 원 대 전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종	복 지 사 충주
박영희	1967년생	170	고	종	회 사 원 고양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종	회 사 원 부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	대	회 사 원 서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종	회 사 원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	대	회 사 원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종	회 사 원 광주
이광표	1968년생	168	고	종	회 사 원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종	회 사 원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	종	회 사 원 전주시
문용중	1970년생	163	고	종	회 사 원 광주
김길성	1975년생	175	전	대	회 사 원 대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종	회 사 원 부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종	회 사 원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종	회 사 원 진해
정연중	1959년생	165	고	종	회 사 원 충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종	회 사 원 경기도
박현덕	1964년생	163	고	종	회 사 원 서울
연길호	1973년생	175	대	종	회 사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종	회 사 원 대구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종	회 사 원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종	회 사 원 홍성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종	회 사 원 경기도
김진목	1969년생	170	고	종	회 사 원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종	회 사 원 대구
서준은	1971년생	170	고	종	회 사 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종	회 사 원 경주시
박전수	1975년생	160	전	대	회 사 원 강원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원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